

부산시, 금융혁신 거점 ‘디스페이스’에 5개 기업 유치

부산국제금융센터 63층에 위치
디지털·해양·혁신금융기업 입주
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대

부산시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63층에 조성한 금융 혁신 거점 ‘디스페이스(D-space)’의 입주기관 공모 결과, 최종 심사를 통해 총 4개 기업을 선정하는 한편 KDX컨소시엄(조각투자장외거래소 준비법인)의 입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디지털금융, 해양금융, 혁신금융 등 부산 금융중심지의 3대 전략 분야를 선도할 기업들로 ▲디지털금융 분야 KDX준비법인·DB증권 ▲해양금융 분야 워터라인파트너스·클락스스코리아 ▲혁신금융 분야 시너지IT투자 등 총 5개사이다.

이는 시가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홍보 활동과 전략적 기업 유치의 성과라고 전했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KDX컨소시엄) 준비법인과 컨소시엄 참여기관인 DB증권이 디스페이스에 동지를 든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조각투자장외거래소는 실물자산 기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자금 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DB증권은 해양·선박 등 부산 특화 토권증권(STO)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금융 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해양금융 분야에서는 글로벌 해운

중개기업인 클락스스코리아와 해양특화 자산운용사인 워터라인파트너스가 합류한다. 두 기업의 참여로 부산 해양 금융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클락스스코리아는 부산지점 설립을 통해 국내 해운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해운시장 정보와 연계해 해양금융 자문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며, 워터라인

파트너스는 해운 ESG펀드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투자와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하반기 서울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항만 인프라 중심의 ‘부산 혁신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금융 분야의 시너지IT투자는 유망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스타트업 투자 및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이번 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내 디지털금융, 해양금융, 혁신금융 분야 간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이를 연계한 활발한 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 세계 금융중심지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5개사 유치는 부산이 국내를 넘어 세계 금융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계기”라며 “디지털과 해양, 기술이 융합된 부산만의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바탕으로 런던, 뉴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금융 도시로 당당히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아동수당 만 13세 미만 확대

경주시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는 우선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며, 이후 매년 1세씩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만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4곳 선정

전남도는 2026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대상으로 강진·장성·완도·구례 등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관광시설을 체험형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 사업은 ▲강진군 유취시설 활용 체험형 야간경관 조성 ▲장성군 미디어콘텐츠 기반 기념관 리모델링 ▲완도군 미디어아트 콘텐츠 조성 ▲구례군 지역 특산물 활용 어린이 체험시설 조성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확정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 797명을 확정하고 279억원 규모 대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면세유 및 농자재비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연리 1%의 저금리를 적용하며,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에게는 전국 최저 수준인 연리 0.8% 초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업인 797명이며, 농자재 구매와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시·군청 등 도내 55곳 의무화
본청 하루 3회 준수 안내 방송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도가 중앙 정부와 공동으로 강도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공공 부문이 나선다. 경남도청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시·군청 등 도내 55개 공공기관 전체가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본청의 경우 하루 3회 준수 안내 방송을 진행하고, 오전과 오후 각 3회씩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도민 대상 캠페인도 병행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26일 에너지 절약 동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이번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의 승용



경남도가 중앙 정부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한다. /경남도

차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등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위기를 극복하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 ▲저층 출입 시 계단 이용 ▲불필요한 조명 끄기 및 점심시간 소등 ▲안 쓰는 가전 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12대 도민 행동’ 동참도 요청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봉화군, 교류도시와 ‘관광 상생’ 추진

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경북 봉화군이 교류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 관광 혜택을 통해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협약을 넘어 ‘체감형 정책’으로 확장된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의 실질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봉화군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협력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시행한다. 적용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대상은 자매·우호도시 주민들이다. 수도권과 부산권 주요 도시가 포함된 만큼, 봉화를 찾는 외부 방문객의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교류의 실질화’다. 그동안 자매도시 협력은 문화 교류나 행사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주민이 직접 체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경.

할 수 있는 혜택을 통해 교류의 의미를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관광이라는 공통 분모를 활용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국내 대표 수목원으로, 자연과 생태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관광 자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봉화(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경북도청신도시, 균형발전 거점 자리매김

도청 이전 10년... 2.3만명 거주

경북도청신도시가 도청 이전 10년을 맞아 북부권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도청 이전을 계기로 조성된 신도시는 현재 약 2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 기반 확충과 기능 강화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신도시 전체 면적 1만 960㎢ 가운데 53%를 차지하는 2단계 건설사업은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상업지구와 공동주택, 학교, 의료시설 등 주요 사업이 단계적으로 마무리되

면서 도시 활성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년간 가장 큰 성과로는 행정 중심 도시 기반 구축이 꼽힌다. 도청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집중되며 행정타운이 형성됐고, 북부권 행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전 대상 109개 기관 중 92개 기관이 이전을 확정했고, 이 가운데 80개 기관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주거와 생활 여건도 안정적으로 개선됐다. 공동주택 입주율은 98%에 달하며 교육·보육시설과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정주 환경이 자리 잡았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중기부 지원 사업에 부산 中企 11곳 선정

3년간 전 주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케일업 지원 사업에 부산 기업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부산시는 ‘2026년 도약(Jump-Up) 프로그램’ 최종 선정 결과, 부산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11개사가 포함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에서 531개사가 신청한 가운데 2개월에 걸쳐 성장성·수익성·혁신성 등을 종합 심사한 끝에 100개사가 선정됐다.

도약 프로그램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개척을 통해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사업 전략 수립부터 사업화,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며 매년 100개사씩 2029년까지 총 500개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1기 참여 기업 의견을 반영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보강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해울이콜센터 야간 확대 운영

울산시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위해 ‘120 해울이콜센터’를 야간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해울이콜센터 운영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연장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 중이다.

야간 콜센터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600여 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버스 분실물 ▲여권 발급 ▲상수도 요금 ▲아이문화패스 카드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울산=이도식 기자